

# Transport Valuechain Daily

2022. 7. 22 (금)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02. 6454-4873  
jungaha.oh@meritz.co.kr



## 국내의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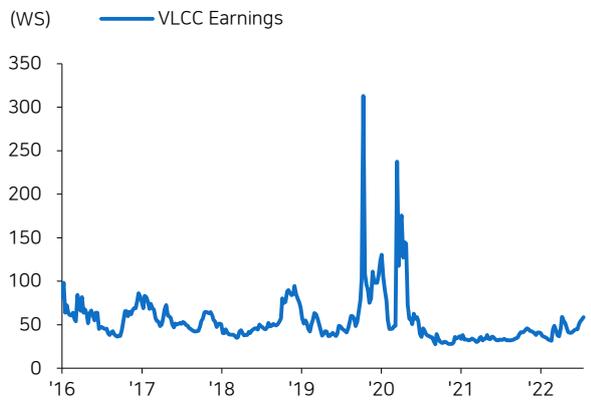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118.0p(+5.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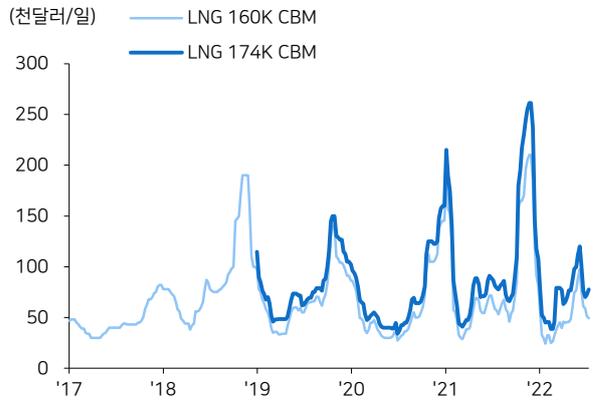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4,074.7p(-69.2p WoW)



**VLCC Spot Rate** 58.6p(+2.3p WoW)



**LNG Spot 운임** 49.5p(-1.8p WoW) 77.8p(+5.3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0.9p(-0.3p WoW) 211.0p(-0.7p WoW)



**항공시장 지표** 267.5p(+0.5p DoD) 86.6p(-1.5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트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Commercial bids due soon for giant Qatargas compression project

Qatargas의 North Field 압축설비 관련 입찰(Package 2)이 며칠 내 시작될 것으로 보도됨. 접수 기한은 8월 1일으로 Qatargas가 4분기까지 업체선정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됨. 예상되는 입찰 컨소시엄은 Saipem-중국 해양석유엔지니어링, McDermott-현대중공업, TechnipFMC-삼성중공업임. (Upstream)

### Tanker fleet set to shrink as newbuilds plummet

Bimco에 따르면 원유 및 석유화학제품운반선 선대가 향후 몇 년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2022년 상반기 1,600만DWT만이 발주되며 최저 수준을 기록함. 선주들이 발주를 머뭇거리는 현상은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인 선가와 연료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함. 최근 선박연료로 LNG가 가장 선호되지만 메탄올도 관심을 받고 있음. (Tradewinds)

### Russia restarts Nord Stream 1 gas flows

러시아가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노르트스트림1을 재가동했다고 보도됨. 가스프롬은 수송용량의 30%만 공급할 것으로 예상함. 연간 550억CBM을 수송하는 해당 파이프라인은 7월 11일부로 가동 중단된 바 있음. (Upstream)

### Russia and Ukraine set to sign grain deal in Istanbul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월 침공 이후 중단된 곡물 수출을 재개하는 협상이 타결됐다고 보도됨. UN주재하에 이스탄불에서 4자 협상을 열고 흑해 항로의 안전보장 조정센터 설립과 함께 곡물 수출입 항구에 대한 공동 통제 원칙에 합의함. 곡물 수출 재개 시 모든 화물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와 UN의 감독을 받게 됨. 한편, 이번 합의를 통해 최소 1,800만톤의 곡물이 방출되고, 2월 침공부터 우크라이나항구에 갇혀있던 대형 벌크선박들이 자유로워질 예정임. 수출 재개 시점은 공개되지 않음. (Tradewinds)

### '세계 4위 항공화물 허브' 중국 화후 공항 운영 돌입

중국 후베이성 화후 화물공항이 지난 일요일(17일) 공식 운영을 시작했다고 보도됨. 화후공항은 2030년까지 연간 330만톤의 화물을 운송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9년 기준 세계에서 네번째로 큰 규모임. 지리적으로 우한과 인접해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및 기타 중국 주요 도시로의 이동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음. 이번 화후공항 화물사업 재개는 자금난에 처한 항공사들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언급됨. (조선Biz)

### 한화그룹, 방산 계열 통합...한국판 록히드마틴 꿈꾼다

한화그룹이 방산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디펜스, (주)한화의 방산부문 통합을 추진한다고 보도됨. 8월 이사회를 소집해 최종 결정할 방침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 한화디펜스를 흡수하고, (주)한화에서 물적 분할한 방산부문도 합병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임. 내수산업 비중이 높은 방산업계 특성상 군 납품 계약이 끝나면 생산라인이 멈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방산계열사 통합 시 인력 배치 측면에서 효율성이 기대된다고 언급됨. (머니투데이)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